



01 국제교류원의 칼럼

○나와 차도 그리고 가고시마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차 켈리 (싱가폴 출신)

○중국의 요괴문화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쉬 웨이 (중국출신)

02 지사의 움직임

○제 47 회 기리시마 국제 음악제 파이널 콘서트, 수료식에 출석하였습니다.(8 월 9 일)

○한국 여행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8 월 12 일)

○주일 인도 대사관에서 「가고시마 DAY」를 개최하였습니다.(8 월 25 일)

03 가고시마 이벤트 정보

○센다이 줄다리기 대회(9 월 22 일)

🍁👤 Coming UP! 【2026 년 10 월, 11 월 이벤트 정보】

○나와 차도 그리고 가고시마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차 켈리 (싱가폴 출신)

여러분은 「차도」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차를 끓이는 것, 정좌, 다양한 작법 등 사람마다 다양한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차도는 단순히 일본문화를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다양한 사람과 장소에서 「인연」을 맺고 많은 만남을 이어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일본에서 엔슈류(고보리 엔슈가 시작한 일본을 대표하는 무가 차도)의 차도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차도를 통해 계절을 느끼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 시간들을 편하게 느끼는 「오모테나시」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 후 싱가포르로 돌아가서도 차도를 계속 했으며 NUS(싱가폴 국립대학)의 차도부에 참가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의 차도부에서는 멋진 동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차도 연습중



▲엔슈류 본부에서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싱가폴 대학 일본 문화제



▲재팬 크리에이티브 센터에서의 이벤트



▲차도부의 선배가 만든 화과자



▲당시 차도부 부장이 디자인한 스티커

어느 날 차도부의 이벤트를 돕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차도부의 부스 앞을 지나가는 어떤 분에게 「국제교류원」이라고 하는 일을 소개하는 팸플릿을 받았습니다. 그 때는 이 한장의 팸플릿이 미래에 저를 가고시마로 이끌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팸플릿을 계기로 국제교류원이라는 일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가고시마현에서 국제교류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날의 작은 만남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차도에는 「이치고 이치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한번뿐인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가고시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저는 이 「이치고 이치에」라는 말을 전보다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원으로서 만나는 분들과의 인연도 앞으로 언제 어떤 새로운 인연으로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차도부의 일상

저는 차도부 부스에서 한장의 팸플릿을 받은 것이 국제교류원이라는 일을 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차도에서 시작된 이 인연을 저는 지금 가고시마에서 국제교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고시마에서 만나는 한명 한명의 인연을 소중히 대하고 싶습니다.



◀차도부의 일상

○중국의 요괴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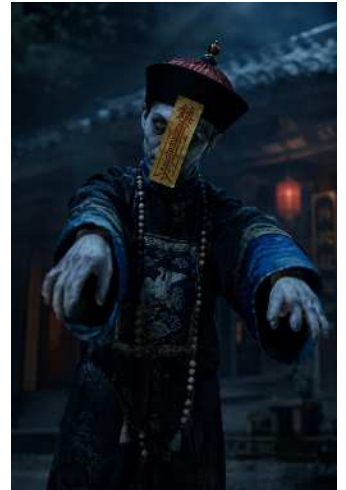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쉬 쉼이 (중국출신)

무더운 여름, 여러분은 이 더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중국에서는 물리적으로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시원해지기위한 특별한 피서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괴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서히 “근육이 얼어버린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식은 땀을 흘리며 더위를 잊고 시원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요괴 문화에 대해 같이 들어보고 이 무더위를 날려버립시다!

요괴 1 : 강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요괴 중 하나로 강시는 틀림없이 중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괴 문화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시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고 그 모습도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강시”라고하는 말은 도교(중국 삼대 종교 중 하나)의 『대천록』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이 책에서는 강시를 사지가 경직되어 머리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안구를 움직이는 것도, 두 다리를 벌리는 것도 불가능하며 심지어 썩지 않는 시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시는 천상, 지하, 인간 그 모든 곳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승에 몸을 둘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곳 저곳을 떠도는 존재입니다.



▲강시(Chat GPT 로 작성)

명나라 중기(15 세기 후반에서 16 세기 중반) 이후 사회의 발전과 함께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강시를 테마로 한 문학작품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명나라 중기부터 청나라(17 세기)에 원매의 『자불어』와 기윤의 『열미초당필기』를 필두로 강시가 나오는 작품들이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근대 이후, 홍콩에서 강시 영화가 대히트하면서 강시에 대한 이미지가 정착하고 이 요괴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요괴 2 : 화피귀(畫皮鬼)



▲화피귀(Chat GPT 로 작성)

2008 년 영화 『화피』의 공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화피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청나라 시대 작가 포송령의 소설 『요재지이』를 원작으로 여우의 요괴가 인간의 껍질을 쓰고 사람을 먹으며 미모를 손에 넣어 다른 인간과 사랑에 빠져 부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피귀는 매일 밤 인간의 껍질을 벗고 그것을 가공하여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얼굴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피』는 매우 상징적인 개념이며 외견은 아름답지만 내면의 진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다양한 책에 다수 요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산해경』과 『요재지이』가 가장 유명합니다. 중국의 요괴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된 책이나 드라마를 찾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02 지사의 움직임

○제 47 회 기리시마 국제음악제 파이널 콘서트, 수료식에 출석하였습니다.(8 월 9 일)

국내외에서 저명한 음악가와 수강생을 초대하여 미야마 콘셀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제 47 회 기리시마 국제음악제의 마스터 클래스 수료식에 출석하였습니다.

파이널 오케스트라 콘서트는 수강생도 참가하여 바이올리니스트의 세르게이 클리로프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시작으로 서정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연주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 음악제에서 한 경험을 연료로 삼아 세계로 날개짓하여, 장래에는 아티스트로서 다시 한번 기리시마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음악제는 쓰쓰미 음악감독과 함께 개최하는 마지막 음악제입니다. 긴 시간동안 기리시마 음악제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음악제를 함께 만들어온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리시마 음악제의 모습



▲인사하는 모습

○한국의 여행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8 월 12 일)

서울에 있는 대형 여행회사인 한진 트래블과 하나투어에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가고시마현으로 오시는 분들은 겨울에 골프와 온천을 목적으로 많이 오시는 반면 여름에는 방문객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여행회사와 의견교환을 하며 가고시마현에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일본 제일의 음식이 있으며 또한 여름에 추천할만한 관광 콘텐츠로서 세계자연유산 야쿠시마의 산림욕, 폭포 투어와 이부스키 도센교의 소면 나가지 체험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의견 교환하는 모습▲

○주일 인도 대사관에서 「가고시마 DAY」를 개최하였습니다.(8 월 25 일)

주일 인도 대사관에서 「가고시마 DAY」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일에는 인도와 연이 있는 사업자와 인도 본국의 경제계 인사 등 약 170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이벤트는 가고시마현과 인도의 상호이해를 심화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첫번째 스텝으로, 세미나 및 교류회에서는 현내사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시마가 자랑하는 식문화 등 가고시마의 매력을 폭 넓게 PR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벤트에 앞서 수단 수석공사를 예방하여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굉장히 유의미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이번 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가고시마현과 인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세미나의 모습



▲교류회의 모습

03 가고시마 이벤트 정보

○센다이 줄다리기 대회(9 월 22 일)

매년 9월 추분 전날에 개최되는 사츠마 센다이이 전통 행사입니다. 당일에는 아침부터 자위대 센다이 주둔지, 건설업협회, 동네의 중고등학생, 일반 시민 등 하나가 되어 동아줄 끄니다. 길이 365m, 무게 7톤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줄다리기 줄입니다.

역사는 420년 이상 이어 온 전통행사입니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사기를 올리기 위해 시마즈 요시히로가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가고시마현의 무형민속문화재○

줄다리기 당일에는 아침부터 약 1500명의 사람들이 365개의 줄을 반나절 이상 시간을 들여 하나의 큰 줄로 엮습니다. 밤에 하는 줄다리기는 길이 365m, 무게 7톤의 큰 줄을 약 3000명 이상의 상반신은 벗고 '사라시'라는 흰천을 하반신에 두른 '하다카'라고 불리는 남자들이 일제히 줄을 당깁니다. 상대를 방해하기 위해 상대 진영에 밀고 들어가는 '오시타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의 몸과 몸이 격하게 부딪히는 모습은 구경꾼들을 압도하는 웅장한 줄다리기입니다.



▲센다이 줄다리기 대회「© K . P . V . B」▲

☀Coming UP ! 【2026 년 9 월,10 월 이벤트 정보】

◇10 월

10 일~11 일 2026 아쿠네 미도코이 축제(11 일:불꽃놀이)(아쿠네시)

17 일~18 일 가고시마 재즈 페스티벌(가고시마시)

30 일~11 월 3 일 미야마 CRAFTWEEK 2026(히오키시)

31 일~11 월 3 일 이즈미 마치테라스~대나무 조명으로 잇는 빛의 제전~(이즈미시)

◇11 월

1 일 사츠마센다이 한야마츠리(사츠마 센다이시)

2 일·3 일 오히라 마츠리(가고시마시)

3 일 야고로돈 마츠리(소오시)

29 일 제 33 회 요론마라톤(요론섬)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편 집 후 기

(가고시마현 종합정책부 국제전략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부터 싱가포르 출신의 국제교류원 차 켈리씨가 국제전략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호에는 차 켈리씨의 첫 칼럼이 실렸습니다. ✨ 차도를 계기로 국제교류원으로 가고시마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니 멋진 “인연”이네요!

다음 호의 국제교류원 칼럼도 기대해주세요!

9 월은 잘 즐기고 계신가요? 10 월은 즐거운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

식욕의 가을 🍂 스포츠의 가을 🏹 예술의 가을 🎨 독서의 가을 📖 그리고 할로윈 👻

가을의 행사가 끊이질 않네요~!

일교차가 심하니 컨디션 관리에도 신경써주세요 !

그럼 다음호도 기대해주세요☆彡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그외에도 전세계의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종합정책부 국제전략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minami@pref.kagoshima.lg.jp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현 홍보지「현정 가와라판」

<http://www.pref.kagoshima.jp/kohokocho/kouhoushi/kohosi/kawara/index.html>

가고시마 관광사이트

<https://www.kagoshima-kankou.com/>

※ 이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 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